

결집이나 분열이나...대권 승패 가를 호남의 선택은?

이재명·윤석열 대선 레이스 시작

민주당 텃밭 절대적 결집 절실

윤석열, 10일 1박2일 광주 찾아

망언으로 돌아선 민심 달래기

진정성 담은 정책·공약 제시해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가운데 호남 민심이 차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 대부분은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상승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울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대선에 여야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텃밭인 호남 민심을 '집토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호남 민심 결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도 호남의 지지없는 수도권 등에서 '호남 민심 확보' 및 '중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남 표심 잡기에 간간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호남 표심 결집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으면서 호남 민심에 다가갈지가 대선 전 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호남 표심 결집이 최대 관건=민주당의 대권 승리는 호남 민심 결집이 우선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데다, 호남이 민주당 결집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호남 민심 결

집이 전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최근 이재명 후보 측 핵심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지역 정치 인사들과 만나 "호남에서 80~85%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대권을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할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용공로 캠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 완전체'는 여전히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평이다. 실제, 최근 여의도 모처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 마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 호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중심으로 이 전 대표 측 지지자 등 호남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약 및 전략과 함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1박2일 광주 방문...국민의힘, 호남 민심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호남에서의 신규 당원이 8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동안의 '서진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려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지를 상승'이라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모처럼 호남 공약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강아지 사과' 등으로 호남에서의 입지와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향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호남 구애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직접 광주를 방문해 사과할 계획인데다, 당 차원의 '호남 달래기'가 더욱 적극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윤 후보는 오는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 시민에게 거듭 사과함으로써 호남 구애의 첫 발짝을 뒀다. 특히 지난해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 응원 메시지를 적어 나무에 달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5·18 묘역에서 '당내 일부 인사들의 역사 왜곡과 폄하 발언'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무릎 사과'를 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후보의 호남 행보는 더욱 쟁쟁해질 수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윤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거세진 젊은 당원들의 반발도 호남의 젊은 층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이준석 대표 이후의 당내 개혁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기에 빠르게 지지율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결집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뿐인 공약이나 형식적인 사과로 지역 민심을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호남인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예측했던 후보”...이재명, 윤석열 맞춤형 본선전략 가동

행정이 이미지 정책행보 역할

최대 승부처 2030 정책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선 맞상대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답에서 윤 후보 선출에 대해 "제가 예측했던 결과라 별로 놀랍지 않았다. 각이 서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의 본선 진출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내심 "나쁠 것 없다"는 눈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를 걸어 온 데다 '리스크'가 많은 상대라는 점에서 대

응이 수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홍준표 의원의 경우 이 후보와 똑같은 휴수저 출신에 풍부한 행정 경험 등 비슷한 면이 있지만, 윤 후보는 금수저 출신에 평생 검사로 특권적 생활만 해 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비주류 출신의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내세워 정책 행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장동 방지법 등 입법·예산 드라이브도 그 일환으로,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윤 후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에게 거리를 두는 2030세대 청년 민심은 올 대선의 승부처로 꼽

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원래 2030세대는 이재명에게 열광했는데, 이재명이 미워스러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했다가 홍준표에게 갔던 것"이라며 "선명한 청년정책 행보를 하면 청년정책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니냐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주된 전략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전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 대사면' 카드...민주 지도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내 대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내 대사면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 차례 강화된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7일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대사면' 의미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입당을 거부하거나, 입당해도 공천 시 감점을 하는 제도가 있다. 정치적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사면론을 우려하는 시선에는 행정성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탈당자들이 복당의 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 공천심사 시 감점 조항마저 삭제하는 것은 당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도 당을 지킨 인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들의 '무혈입성'이 현실화하면 오

히려 당내 분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7일 "대사면론은 조금 성급했다"며 "여태 당에 남아 헌신한 사람들의 로열티를 인정해주는 건 커녕 집 떠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면 카드의 범여권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내 대사면'에 대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교육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범여권 세력의 총집결을 이루려면 이른바 '용공로 선대위'를 당 외곽에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부담스러우면 복당의 문턱은 낮춰주되 '공천 감점' 조항은 유지하는 절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